

# 어울림과 어우러짐

햇살이 눈부신 아침. 훌쩍제로 한적한 주차장을 내딛는 나에게 찬바람이 목사이로 들어와 가슴을 파고들며 인사를 한다. 어느새 가을이라는 계절의 변화가 와버렸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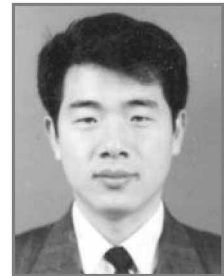
가을이라는 계절에 반나는 풍성함과 스산함, 두 단어 사이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어울린다는 말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자연과 사회에 어울리게 되었는가? 아니면 어우러진 것인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여럿이 모여 한 덩어리나 한된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어울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서편제라는 영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논두렁과 밭 그리고 낮은 야산을 거닐고, 아슬러 흘러나오는 남도가락의 그 밋진 어울림이 기억을 자극하였으리라....어울림의 아름다움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하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디옥이 요즘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어울림이 필요한 시점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이 든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존각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어울림, 어색한 등은 굳이 감각적인 우수성을 지닌 사람만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울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조화(調和)이 그것이지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우르게 함이라는 말이 있다.

조화는 불안감을 없애주고 어색함을 감추게 만드는 형태나 동작을 이루게 한다. 긍정적 복표의 추구는 부정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함축적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임 옥 조

한국 전자표연 구원  
경영관리팀장  
031-679-9611

'어울린다' '어색하다'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 디옥 어울림의 최종적 느낌은 그 복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되어 이루어진다.

## 1. 어울림의 목적

음악에 있어서 가락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의 어울림(조화)을 나타내는 말로 '가락을 때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가락을 때다'라는 표현은 가락이라는 무형의 성질을 유형적인 모습으로 형상화 시킨 말로 '①노래나 춤의 처음을 시작하다. ②흥이 나는 일에 첫 동작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가락이 나다'라는 말은 '인하는 기운이나 능력이 오르다'라는 의미로, '가락이 맞다'라는 말은 '노래나 동작이 밋지게 들어맞다'라는 의미로 나타내어 진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어울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울림의 방법이 유사성질의 조합이든, 특별한 인상과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포인트의 접목이든, 어울림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스스로 목적을 정해 놓아 버린다. 자신, 사회, 조직, 업의 접목 등에 있어서도 그 목적의 지향성이 어울림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것은 결국 '흥이 나는가? 능률이 오르는가?'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울림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능률과 가치가 오르고 아름다워야 한다. 부자연스러움이 없고 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연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어울림을 위한 방법

어울림을 위한 노력은 누구나 시도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도전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식과 어울리는 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관성이 강한 어울림을 정의하는 것도 분세지만 어울림의 방법 또한 다양함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의상적인 세련됨을 판단할 때, 보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 주변 배경의 차이, 보는 각도의 차이, 조명의 밝기에 의한 차이, 구도나 색에 의한 대비의 차이, 유행의 정도에 의한 차이 등등 무수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편적인 인식의 평균점을 가정하고 세련됨을 말한다.

즉,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보통의 생각이 밀집되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린 가정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구심점이 자신의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울림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방법을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다.

우선 물질적 형태의 접목이다. 하지만 이 접목

의 형태도 여러 갈래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하나가 반대되는 느낌과 영역의 접목이다.

색을 말하는 것 중에 '보색'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가법혼색(加法混色)에 따라 색상이 서로 다른 2개의 색광을 혼합하여 부채색(흰색·검정·회색)이 될 때, 이 색광을 서로 일컫는 말로 여색(餘色)이라고도 한다. 보색으로 이루어진 어울림은 상당한 느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적인 형태는 변함이 없으니 보는 사람에 따라 색채, 거리, 무게, 크기 등이 달라 보이는 심리적 반응을 나타낸다. 하나의 어울림의 방법이지만 효과가 시대하고 충분한 변화의 폭을 느끼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유사한 느낌과 영역의 접목이다. 대비 효과가 가장 적은 위치에 존재하는 두 색이 접목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영역에 대한 확대는 충분히 감지된다. 보는 시야가 말수록 같은 색으로 인식되고 민감성은 작아진다.

다음으로는 이질적 형태의 접목이다. 새집을 장만하고 거실과 화장실에 걸어 둘 무언가를 고민해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차를 고른다던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등등 일상적 생활에 있어 판단되는 대부분의 건단이 건국은 이질적 형태의 접목을 통해 자신의 어울림을 추구하려는 본질적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이질적 접목은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단지, 주어진 문화양식 영역내에서가 아니면 자신의 최적의 안정감과 쾌적감, 흥분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어울림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 3. 어울림의 모습들

양산과 우산이 어느 경우에 어울리는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울림의 주체가 되는 요소는 그 배경에 의해 어울림이 좌우되게 된

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만으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어울린다, 어색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가 되는 핵심이면서도 주변의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극히 모순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것은 주제보다 주변의 힘이나 영역이 강하거나 클 때 나타나는 영향들이다.

이질적 요소들의 어울림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에 속한다. 하지만 동질적 요소들의 어울림은 배경보다는 서로 간에 영역과 자신이 가진 고유성질에 의해 귀속되어 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조직에 있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경영혁신을 위한 질감 등은 동질적 요소의 어울림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신규 사업의 확장, 기관통합 등은 이질적 요소의 어울림에 해당된다. 독자들의 반론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체든 객체든 배경이든 간에 어울림을 위한 노력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보편적, 사회적 통념이라는 기준 내에서 자신의 개성까지 탐색시키면서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당연히 이루어지는 수순을 밟아서 통념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두고 스스로 따라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나와 사회와 조직과 구성원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것의 연장선이 삶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 번 씬은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우리 가정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 조직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어울리기 위해 내가 어떤 배경으로 서 있어야 할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주변이 배경이 될 수는 없을까? 구석에 존재하여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울림의 포기성이 내가 될 수는 없을까? 꿈과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최적의 목표였다.

현실에 어울리기 위해 하나 둘 빼어낸 꿈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허

탈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젠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어울림을 창조해야만 한다. 허탈해 하거나 배성을 닦할 시간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4. 내일을 위하여...

빼어난 어울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속한 여건 내에서의 모습도 내가 이루어낸 흔적의 결과물들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위치한 이 자리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려놓은 흔적일 것이다. 우리 주위의 상황은 날로 변화해가고 우리는 그것을 닦아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변화를 미리 읽고 바뀔 자리에 먼저가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자연히 뒤에 오는 배경들은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방법인 것이다.

꽃병에 꽃을 꽂기 위해 우리는 손질은 한다. 가시른 자르고 잎을 자르고 결국은 깔끔한 모습의 꽃을 병에 꽂는다. 그리고 그 중심의 꽃을 보면서 아늑답다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사회나 조직은 어떠한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불요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중심에 설 수 없다. 흐름이나 배경이나 그 중심에 서지 않으면 어울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구석에 존재하여 배경의 일부로 어우러지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환경의 변화에 의해 날아져서 사라지는 영역은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질적 접촉이든 동질적 접촉이든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찾아 내어야 한다. 그것이 내일을 위한 스스로의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울러짐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울림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니 자신과 기성, 그리고 우리 조직과 사회에 최선을 다하는 걸 임을 잊지말자. 아침 칸바람으로 다가온 가을이 늦은 오후 따가운 햇살로 눈 속을 파고든다.

| 기술표준 2008.10

